박동철의 사진 강좌

박동철 사진 강좌

- 마지막회 -
눈에 띄는 사진 만들기

눈에 띄는 인상적인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도와 색상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는 방법, 타이밍, 보조피사체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 중 색상 대비란 조합된 색에 의해 주제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명도 대비는 주변의 밝기와 주제의 밝기가 대비를 이뤄 주제가 배경으로부터 돋보이도록 만드는 기법을 말한다. 특히 하나의 움직임 속에서 서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단 하나의 순간을 찾아내는 타이밍 또한 인상적인 사진을 만드는 요건이다. 〈편집자 주〉

사진강좌 연재 일정

가. 빛
나. 카메라와 노출

가. 황금분할법
나. 삼분할법
다. 여백과 공간

가. 구성과 구도의 차이
나. 시점의 차이
다. 지그재그 배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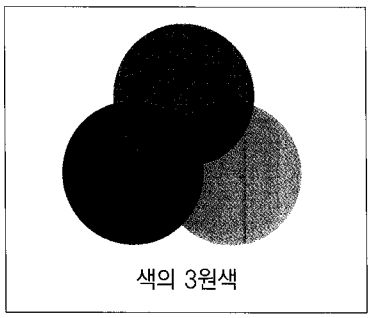
가. 표준렌즈
나. 망원렌즈
다. 광각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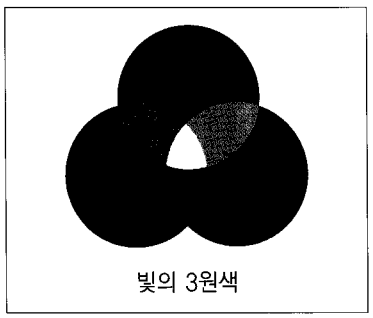
가. 전경
나. 중경
다. 원경

6. 눈에 띄는 사진 만들기

가. 대비
나. 타이밍
다. 보조피사체

가. 대비


색의 3원색


빛의 3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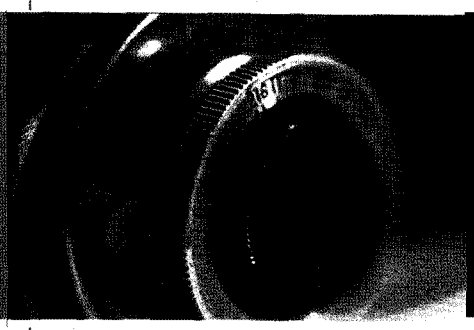
컬러 사진에서 색조는 사진의 느낌을 표현하고 사진의 경, 중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색의 삼원색은 마젠타(Magenta), 시얀(Cyan), 옐로(Yellow)로, 어떤 색을 섞어도 만들 수 없다. 오로지 이 삼원색의 배합에 의해서만 다른 색들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색의 삼원색을 섞어서 서로 다른 색을 만들어 내는 방식을 감산혼합이라고 한다. 삼원색을 똑같은 양으로 섞으면 그림의 가운데에 중첩부분처럼 검정에 가까운 짙은 회색이 만들어진다. 또 색의 삼원색의 마젠타와 옐로가 섞여 Red가 만들어지고, 옐로와 시얀이 섞여 Green이 되며, 시얀과 마젠타가 섞여 Blue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빨강(Red), 파랑(Blue), 녹색(Green)은 빛의 삼원색이다. 이 세 가지 색을 갖가지 비율로 섞으면 수 없이 다양한 색이 만들어지며 이러한 방식을 가산혼합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비율로 섞으면 그림의 가운데 중첩되는 부분과 같이 흰색이 된다. 가산혼합 결과의 색은 디지털 카메라에 적용되는 RGB 색상의 기초가 된다.

색상 정보에서 가장 큰 특성을 찾아본다면 단연 명도와 채도다. 무채색인 검은색과 흰색은 색상이 없고 오로지 명도만을 가지는데 각각 명도 1에서 12까지의 기준으로 볼 때, 각 색상 별로 밝은 쪽을 명도가 높다고 하고, 어두운 쪽을 명도가 낮다고 한다. 사진에서도 명도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할 수 있는데, 단일 색상의 화면 속에서도 각 부분별로 명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해 뜰 무렵이나 해 질 무렵의 붉은 기운 속에서도 노출 값이 적은 응달 부분이나 그림자 부분은 해를 직접 받고 있는 밝은 부분에 비해 명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명도대비를 이용하여 주제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기법을 '명도대비 기법' 이라 부른다. 이는 카메라나 노출계가 지시하는 노출치를 기준으로 + 방향으로 노출 보정을 하여 전체적인 명도를 증가시키거나, 반대로 – 방향 노출보정을 통해 더욱 명도를 떨어뜨려 어두운 느낌으로 주제를 강조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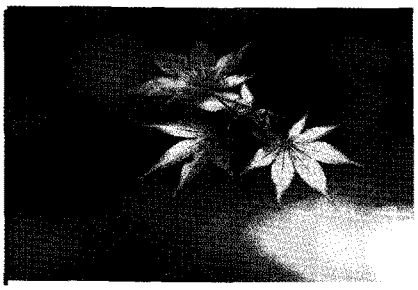
이에 반해 채도는 색의 맑음 또는 탁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포화도(Saturation)라고도 하며 순수한 원색에 가까운 색상을 '채도가 높다' 라고 하고, 다른 색상이 섞여 맑지 않은 색상을 내는 것을 '채도가 낮다' 라고 한다. 낮은 채도는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만들어내고, 높은 채도는 밝고 명랑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1) 색상대비

색상 대비란 조합된 색에 의해 주제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색상환에서 서로 멀리 떨어진 색끼리 조합할수록 색상 대비가 강해지며, 보색끼리 조합했을 때 색상 대비가 가장 크다.



박동철의 사진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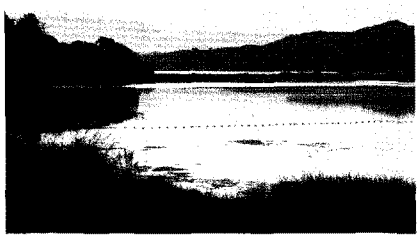


2) 명도대비

주변의 밝기와 주제의 밝기가 대비를 이뤄 주제가 배경으로부터 돋보이도록 만드는 기법인데, 의외로 주변에서 쉽게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밝은 배경에 어두운 주제는 실제보다 작게 느껴지기도 하며, 어두운 배경에 밝은 주제는 실제보다 크고 돋보이게 느껴진다.

나. 명암과 콘트라스트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명암은 미술에서 그 농도를 12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아주 밝은 흰색에 가까운 밝기인 1단계부터 아주 어두운 검은색의 12단계까지 그 농도의 변화에 따라 질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진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특히 이러한 농도의 변화를 그러데이션 또는 계조라고 부르는데, 더욱 세밀하게 분류될수록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 즉,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촬영했을 때 너무 밝게 나와 질감이 살아나지 않는다든지, 어두운 그늘을 촬영했을 때 검게 나와 웅달 속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들이 계조가 나쁜 상황들이다. 이러한 계조의 표현은 밝고 어두움에 대한 대비로 나타나는데, 카메라에서는 *Contrast*라고 한다. *Low Contrast*는 가장 밝고 가장 어두운 부분의 계조는 줄어들고 중간 톤의 계조가 풍부해지는 상태를 말하지만, 상이 뚜렷하지 않고 입체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High Contrast는 극명한 대비를 가지는 상태를 일컫는다. 어두운 것은 아주 어둡게, 밝은 것은 아주 밝게 하여 진하고 입체감이 잘 나타나는 사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Contrast는 계조를 떨어뜨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사진은 얼핏 보기에 시선을 끌 만큼 또렷하고 강렬해 보이지만, 섬세한 계조가 없어 오래 두고 보기엔 부적합한 사진이 되기도 하니 대비의 조절은 사진의 주제와 용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야만 한다.



다. 대비를 이용한 규모의 표현

크고 작음의 비교는 단독적인 요소의 존재로는 가늠하기 힘들다.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하여 보여주는 대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를 더욱 강화시키고 부각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대비는 사진촬영에서 조금 다른 룰을 필요로 하다. 사진은 다양한 종류의 초점거리를 가지는 렌즈를 이용하여 사물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넓은 풍경을 담을 수 있는 광각렌즈로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전경의 배치는 원근감을 만드는데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규모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이라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물들의 위치가 서로 근접해 있어야만 정상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광각렌즈의 특성 때문에 정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풍경사진 속에 사람의 모습을 집어넣어 규모감이나 생동감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규모의 표현은 표준 렌즈 이상의 초점거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화면이 단순화 될수록, 전경이 없을수록 더욱 큰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대비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만약 단독적인 피사체라면 실제의 규모보다는 감성적인 규모감을 느끼도록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의 소외감과 초라함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여백을 통한 표현이 유리하다. 배와 바다만 배치하거나 혹은 작은 섬을 같이 배치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라. 타이밍

사진은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영상물이나 상상력에 기인한 회화와 조각 등에 비해 순간을 포착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그들과 구분된다. 특히 섣부르게 판단하는 이들은 풍경사진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느긋하게 촬영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발상은 남들과 다른 인상적인 사진을 만들기를 포기했다는 말과 같다. 멋진 순간을 발견하고 렌즈를 바꿔 끼우는 사이에 자연의 모습은 조금 전에 느꼈던 감동을 숨겨 버릴 만큼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늘 같은 풍경, 같은 느낌의 사진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느낌의 사진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순간, 즉 타이밍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들이 촬영한 사진을 보고 감동받아 똑같은 장소를 찾아 촬영한 사진이라도 감동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변화의 포착을 위한 타이밍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것은 시간과 관련된 사항으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에서도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의 서문에 **'이 세상에 결정적 순간이 아닌 순간은 없다. 하지만 하나의 움직임 속에는 그 동작의 과정에서 각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는 한 순간이 있다. 사진은 이 평형의 순간을 포착해 고정시키는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결국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제 때에 도착하는 것이다.'** 라는 글귀가 있다.

하나의 움직임 속에서 서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단 하나의 순간을 찾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상적인 사진을 위한 타이밍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할 것이 있다. 브레송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단 한 번의 셔터를 눌러 얻은 사진이 아니라 같은 장면을 위해 똑같은 자리에서 필름의 반롤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절대로 트리밍하지 않으며, 연출하지 않는 사진을 위해서는 결과를 예측하고 오랫동안 그 순간 기다려야만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박동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진 활동을 시작하여 전국 각지를 구석구석 여행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사진에 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여행지를 대표하는 '여행이 즐거워지는 사진 찍기' 1편과 2편 및 사진전문 서적 '사진의 구도&구성' 등을 출간했다. 2001년 필름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수십 차례의 사진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유명 여행지와 사진촬영기법 소개를 위해 TV와 라디오 등에도 수차례 출연한 바 있다. 2008년과 2009년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P&I)에서 사진학 강의를 비롯한 각종 사진학 강의 및 세미나를 주관하며 사진 계에서는 유명강사로 정평이 나있다. 현재 사진동호회 처리닷컴(http://cheori.com)을 운영 중이다.